

물질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유, '흔적 Trace: 김현식, 신미경'

윤 권혁탁 기자 | 승인 2022.02.24 09:37

| 갤러리J에서 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웰니스앤컬처뉴스 권혁탁 기자] 갤러리J는 2022년 새해 첫 전시로 회화작가 김현식과 조각가 신미경이 함께하는 전시《흔적 Trace: 김현식, 신미경》을 마련하였다. 전시는 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이번 전시는 각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작가가 벌이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매체 방식이 눈길을 끈다. 김현식의 입체적인 회화 신작을 비롯하여 신미경이 비누 작업에서 선회하여 2021년에 발표했던 최근작 '제스모나이트(Jesmonite)' 매체 작업을 '비누' 작업과 함께 재구성하여 소개하면서, 전시는 또한 회화와 조각이라는 오래된 관념적 범주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신작을 중심으로 묵직한 두 작가의 작업이 한 공간에서 빛어내는 색다른 변주가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지 기대된다.

두 작가는 특히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의 질료에 대한 끈질긴 탐구와 수행적 태도를 같이하며 매체적 관습이나 일상과 예술, 동서양, 시공간의 경계 위에서 사유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이나 물질적 환경에 놓여있기보다 첨단 기술과 소비문화에 의한 '이미지'의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실제적인 감각을 잠식한다. 이러한 때에 갤러리J는 인위적이고 표면적인 그리기나 만들기보다 물질적 질료가 시공간의 세계로 이행하는 근원적 시도에 주목한다.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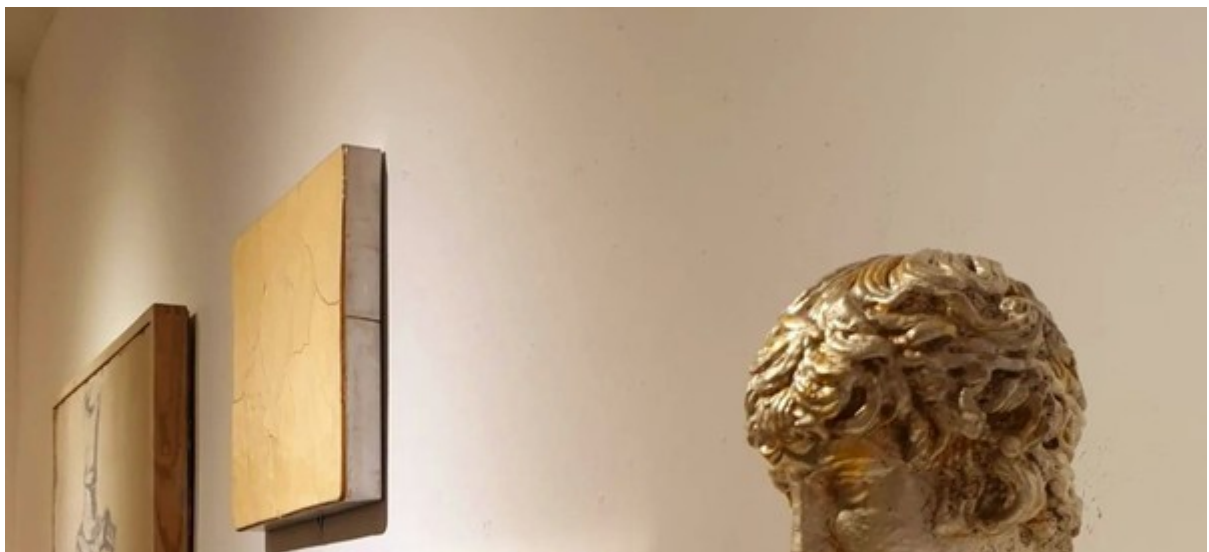
신미경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영국박물관 등 유럽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국제 무대에서 25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각의 재료로써의 '비누'라는 매체의 가변적인 물성과 풍화되는 유물의 형태를 대응시키는 연구로 작업을 해 왔다. 최근 조각적 재료인 제스모나이트를 매체로 하는 작업으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세라믹과 유리 분야도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작업해왔으며, 현재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국립도자박물관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석 시리즈'는 세라믹을 재료로 한다.

비누 대신 새로운 동시대 조각적 재료로 제작된 '회화의 형태를 띤 납작한 조각'(작가에 의하면)도 보여준다.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흔적과 풍화자국에 주목하여, 고대 벽화나 오래된 건축물의 일부 혹은 추상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비정형의 조각들이다. 질료 자체가 스스로의 물성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조각적 형태다.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물질로부터 형태의 이루어짐을 근원에서 목도하는 것이다. 찌그러진 비누 병을 브론즈 유물로 번역하였듯이, 작가는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라지는 것을 새롭게 바라본다. 그는 쓸모를 다한 고무판이나 스티로폼, 유리판 등을 주형으로 제스모나이트로 캐스팅을 한다. 제스모나이트는 염료나 각종 재료를 섞어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조각적 개입으로 질료가 스스로 형태를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Wellness
Culture
& news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신미경의 작업이 물질 이미지의 견고하고 불변할 것 같은 절대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한다면, 김현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변하지 않는 본질, 절대 공간을 추구하면서 명상적이고 시적 세계로 인도한다.

김현식 역시 30여년의 긴 세월을 회화 평면과 에폭시 레진(Epoxy-resin)의 물성을 연구하고 그 투명한 물성을 통해 평면의 고요 속에 빛과 기운이 총명한 깊은 공간을 담아내는 독보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여 현재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수한 차이들의 흔적과 정지된 시간 속 침묵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울림과 에너지를 전해준다.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평면 속에 공간을 담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그것은 회화의 평면성을 전제로 한다. 그는 평면에 레진을 평평하게 부어 굳힌 후, 그 위에 송곳으로 선을 일렬로 촘촘하게 무수히 그어나간다. 이어 그 위에 안료를 바르고 닦아내면 그어진 흠은 가느다란 색선으로 드러난다. 이를 굳힌 후 다시 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서 수행을 하듯 반복적인 레이어를 쌓아 나간다. 그 결과 무수한 선과 선 사이, 층과 층 사이에는 미세한 틈새, 사이 공간들이 생긴다. 투명한 레진과 안료라는 물질로부터 반사와 통과를 거듭하는 빛의 상호작용을 거쳐 아름답고 깊은 명상적 공간이 만들어진다.

뿜거나 캐스팅하고 떼어내며, 또는 레진을 굳히고 선을 긋는 가운데 무언가에 의해 남겨진 자취가 있고 사건은 자국을 남긴다. 흐르는 시간과 멈춘 시간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차이들로서 희미한 기원 아래 완벽한 현전이 될 수 없는 불안정한 흔적일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두 작가의 작업으로부터 질료(matter)와 형상,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빚어지는 예술적 창조성과 생명력을 경험하고 이를 관통하는 시간성에 집중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성이 일어나는 장소, 현전과 부재 사이에 걸쳐진 모호한 '흔적'들,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유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진출처=웰니스앤컬처뉴스]

전시의 구성은 김현식의 대표적인 작품 'Who likes?' 연작과 <현을 보다> 연작(2022), <거울> 연작(2021), 그리고 신미경의 제스모나이트 작업 <앱스트랙트 매터 Abstract Matter> 시리즈(2021)를 중심으로 신작인 비누 조각 <화석화된 시간> 시리즈(2021), 비누 평면인 드로잉과 회화 시리즈로 이루어진다. <앱스트랙트 매터> 시리즈는 비누 대신 새로운 동시대의 조각적 재료로 제작된 '회화의 형태를 띤 납작한 조각'(작가에 의하면)으로,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축적된 흔적과 풍화자국에 주목하여, 고대 벽화나 오래된 건축물의 일부 혹은 추상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비정형의 추상적 평면 조각들이다. 이들은 형태의 근원으로 회귀하여 조각적 물질로부터 형태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재료 자체의 추상적 물성으로 나타난 새로운 조각적 형태이다.

전시장에서 삼차원 입체조각은 물론, 전통적인 회화 방식으로 벽에 걸린 평면조각과 입체적 구성물의 회화 작품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각기 저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관객은 뚜렷한 형상 조각부터 질료의 흔적 같은 작품들을 대면하고 현상 너머, 그리고 형태와 그 형태를 벗어난 물질까지 연결하여 살펴본다면 비누 향이 폴폴 날 것만 같은 이번 전시의 스펙트럼은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강주연 디렉터는 "'비누'와 '레진'이라는 재료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신미경과 김현식 작가에게 재료의 물성은 보다 특별하게 작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조각'에의 사유로, '회화'에의 사유로 각기 향한다"고 설명했다.

[내용참조=갤러리강주연디렉터]

저작권자 © 웰니스앤컬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탁 기자